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잊지 말자 6·25

정 옥 자
서울대 명예교수

해마다 6월이 오면 제일 먼저 6·25전쟁의 기억이 떠오른다. 이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처럼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6·25전쟁은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그 명칭도 6·25사변에서 한국전쟁으로, 그리고 6·25전쟁으로 변화하였다.

1950년 6월 25일, 유난히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콩 볶는 소리(따발총 소리)는 요란한데 라디오에서는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만 흘러나왔다.

총소리는 울리는데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고 하니 38선이 지척인 춘천시민들은 갈피를 못 잡고 피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날 피난민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총알이 마당에 떨어지고 나서야 피난을 서둘렀지만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다.

비상식량으로 미숫가루를 만들고, 우리네 자매들은 꼬까옷으로 단장하였다. 아마도 잠깐 나들이 떠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싶다. 대로는 위험하다 하여 산길, 들길로 가던 피난길의 산천은 녹음방초 우거지고 뻐꾸기소리, 꾀꼬리소리 등 온갖 새들의 지저귀어 천국이 따로 없었다.

뒤에서는 전쟁이 쫓아오고, 눈앞에는 천국이 펼쳐지는 이율배반의 계절이었다. 처음에는 신나서 달려가던 피난길은 차츰 고행길이 되었다. 맏이인 내가 아홉 살, 그 다음이 여섯 살, 네 살, 두 살이었으니 나는 차라리 어른 취급을 받으며 걸었다.

청평의 솔이마을에 이르자 서울이 점령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후 진행된 상황은 필설로 다하기 어렵고, 우여곡절 끝에 춘천으로 돌아왔을 때는 엄마와 나 단둘만 남았다. 인민군 치하의 춘천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다.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폭격이 계속되고, 어른들은 부역에 끌려가서 집에 홀로 남아 방공호로 달려가는 일을 되풀이하였다.

미처 방공호로 피신하지 못했을 때는 두 엄지손가락으로 두 귀를 막고, 나머지 네 손가락 두 쌍으로 두 눈을 누르고 솜이불을 뒤집어썼다. 폭격에 귀가 멀고 눈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숨이 컥컥 막히는 무더운 여름에 폭탄의 파편을 막을 수 있다는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고역 쯤은 죽음의 공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 여름이 가자 드디어 국군이 들어왔다.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열렬하게 환영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4후퇴로 매섭게 추운 겨울에, 또 피난길에 올라 서울을 거쳐 신갈리쯤 갔을 때는 중공군과 맞닥뜨렸다.

중공군은 심리전이라 하여 밤이면 구슬픈 피리소리를 흘려보냈다. 꼭 귀신이 곡하는 소리 같아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중공군은 흰 앞치마 같은 것을 머리에 두르고 다니는 위장전술을 썼으므로 무고한 피난민들이 중공군으로 오인 받고 폭격당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1953년 6월 휴전이 되어 춘천으로 돌아와 학교에 가자 가족이 온전하게 살아남은 아이는 거의 없었다. 우리는 모두 결손가정 출신이 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울지 않았다. 상처는 가슴 깊숙이 담아둔 채 질서를 찾아갔다.

그러나 누군들 그 상처를 잊을 수 있었겠는가?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6·25전쟁의 기억은 어제일 같이 생생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는 소금을 뿌리 듯 쓰라리다.

올해가 휴전한 지 꼭 60년이 되는 환갑 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눈부신 바 있다. 이에 취해서 지금 우리는 평화기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감이 있다. 북한의 도발에도 면역이 되어 그러려니 귓등으로 듣고, 통일에 대한 의지도 흐려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다.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대의 국제전쟁으로 부상자 빼고도 쌍방의 군인 전사자만 240만 명에 달했다. 민간인 사상자는 헤아리기도 어려웠다. 남북한 모두 폐허로 변했고,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으면서 상호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등 정신적 피해도 컸다.

이 전쟁은 통일을 이루어야 끝나는 전쟁이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전쟁임을 결코 잊지 말자.

의료칼럼

맞춤형 저출산고령화 대책

허 정
에덴병원장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오래 사는 것과 많은 자식을 갖는 것이다. 이는 영양상태가 낮고, 의료환경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다.

20세기 초만 해도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이 40세가 되지 못하고 보통 열 명 정도 출산을 하면 50% 이상 영·유아 때 사망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경제발전과 의료의 큰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0세를 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30년 전 7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인 가족계획 여파로 출생인구의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후 여성의 학력 증가와 사회진출의 보편화, 양육의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 등이 겹쳐 출산율도 급락했다. 이것이 국가의 큰 위기이고 국가 발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더구나 고령화 문제가 겹치면서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30년 전에는 1년에 출생인구가 70~80만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5만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출산인구는 더 감소하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의료계에서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은 급격한 위축과 폐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많은 초등학교들이 폐교 내지 학급 감축을 하고 있다. 이제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도 심각한 구조조정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2014년에는 인구 7%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경에는 인구 20%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모든 문제를 젊은층이 짊어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이는 세대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발전에 커다란 짐이 되리라 예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을 양산만 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첫째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또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보육시설 등에서도 접근성과 시설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은 민간인에 의지하는 보육시설보다는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연구해야 된다.

또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임금 등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출산의 해결이야말로 우리 국가와 사회에 당면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해결점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 근접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상상 이상의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도래한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은 인지해야한다. 70세가 넘은 고령인구에서는 20% 이상에서 치매환자가 발생되고, 30% 정도에 각종 암이 발생되며, 또한 뇌졸증 등 각종 성인병이 동반함으로써 간병 및 의료지원과 생활지원 등 여태까지 우리의 생활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인기 영합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바로 눈앞에 와 있으며, 최근에 치매간병 등으로 인해 가족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동반자살 또는 타살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설프게 북유럽의 복지정책을 흉내 내거나 답습한다면 우리 환경과 사회적 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또한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시급한 때이다.

기 고

국민 안전체감도 높이기

채 수 창
화순경찰서장

대한민국은 2012년 2년 연속으로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했다. WTO 세계무역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1조 675억 달러로, 9천 869억 달러를 달성한 이탈리아를 제쳤다. 또한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2708달러로, 세계31위를 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어 개발도상국의 모델이 된지 오래다. 해방이후 불과 60여 년 만에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어 낸 것이다.

그러나 시민안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그리 화려하지 않다. 부끄럽게도 교통사망사고 수준 및 자살율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다. 2011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9명으로 자동차 1만대 당 101명(전남 95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자살자는 1만5900명(전남 645명)으로 인구 10만 명 34명으로 8년 연속 세계 1위이며, 2위인 일본(21명)보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밤거리가 세계 어느 곳보다 안전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었으나, 최근의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같은 위험에 많은 국민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산 깊고 물 맑으며 인심좋은 전남도 폭력사건에 자유롭지 않다. 얼마 전에 70대 중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살인 후 사체를 절단하여 유기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잔인한 사건이 발생한 이면에는 오래되어 곪을 데로 곪은 가정폭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교통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며 그 이면에 '술'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하고, 술이 너무 만연되어 있다. 거의 모든 행사마다 테이블에 술이 올라 있고, 술을 마시고 권해야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심지어 공공기관 행사장마저도 제일 상석은 술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술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새로운 술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프랑스의 청소년선도 프로그램 쇠이유(문턱)를 통한 스킨십을 권하고 싶다. '쇠이유' 프로그램은 소년원에 수감 중인 청소년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3개월 동안 2000km를 걸으면 석방하는 교정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 때에는 mp3나 핸드폰과 같은 기기는 일체 가져갈 수 없고, 소년 한명 당 한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일반 소년범의 재범률이 85%인데 비해, 이 쇠이유 프로그램을 거친 소년범의 재범률은 15%라는 결과가 나와, 걷기와 성찰의 시간이 교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어, 각 국이 벤치마킹 중에 있다고 한다.

문제성 있는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본 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일일 멘토로 위촉한다. 멘토로 위촉받은 인사와 1:1 산행하며 땀을 흘리고 손을 잡아 주면, 특강 몇 시간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학교폭력도 결국 남을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인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걸으며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장래 희망에 대해 조언을 하면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산행후 목욕을 하며 서로 등까지 밀어 준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 분명하다.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자살예방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법적, 제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해외 선진국중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 자살율은 절반이하로 줄인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 노원구청의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매년 늘어나는 대장암, 내시경 정기 검사 필요

직장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한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위암검사 같은 건 필수로 받고 기타 자신이 받고자 하는 분야의 암검진은 선택해서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받으면 된다. 질병은 증세가 악화돼 뒤늦게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검사를 받아 예방적으로 발견해 치료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용도 훨씬 덜 들고 완치 확률도 높고, 더불어 국가건강보험료 재정을 아끼는 효과까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건강을 지키며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 남녀는 위암은 많이 발견하고 치료나 완치율도 높지만 대장암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우선 서구화된 식생활과 음주, 흡연이 많아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 암이 커지기 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위암과 달리 대장암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은 내시경이지만 위암은 많이들 검사를 하면서도 대장암 검사는 약간 기피하며 귀찮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얼마 전 보도를 들으니 국제암연구소가 처음으로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 남성의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위암, 폐암, 간암은 줄어드는 반면 대장암은 해마다 6.9%씩 늘어났다고 하니 예삿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

대장암의 가장 적극적인 예방법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다. 조기암이나 용종단계에서 처치하면 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50세가 넘으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고, 가족 가운데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40대부터 검사를 받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번거롭고 귀찮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암검사를 받아 예방적으로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한다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리 검사하고 예방할 경우 병원에 갈 일을 막을 수 있으니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충장로

社 說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두고만 볼 건가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관해 여고생 두 명이 함께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10대의 여학생들이 아파트 고층의 가장자리로 머뭇머뭇 다가섰을 마지막 순간, 내리막의 두려운 저 아래 지상을 바라봤을 그 힘없고 여린 눈망울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서 어른들의 방관이 어린 영혼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간 게 아닌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광주 한 특성화고 1학년인 K양(16)과 C양(〃)은 지난 3일 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서로 손목에 테이프를 감은 채 뛰어내렸다. 결손가정 자녀인 이들 학생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가정환경이 비슷해 평소 친하게 지내왔다.

본보가 취재한 K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K양의 어려움이 생생히 전해진다. "공부하겠다며 학원에 보내달라는데 돈이 없어 보낼 생각을 못했네요. 학원이라도 보내줬으면 덜 미안했을 텐데…". 43.0㎡(13평) 남짓한 작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는 평소 어린 손녀의 청을 들어주지 못한 일을 되뇌며 울먹였다고 한다.

기댈 언덕이 없기는 C양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부모와 떨어져 친척집에 살고 있는 C양도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할 정도로 외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들 여학생에 대해 최근까지 상담을 해왔으나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결손가정 학생들에게 학교는 제 2의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와 다를 바 없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이번 일과 관련해 사과한 것도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당장 일선학교의 학생관리에 누수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생명존중 교육강화 등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전대란 우려에도 전력 물 쓰듯 해서야

전력거래소가 5일 오전 11시20분 전력수급 경보인 '관심' 단계를 발령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예비전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6월 초인데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지속돼 전력 경보가 잇달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날 오전 11시10분 예비전력이 400만㎾ 미만으로 10분 이상 지속되자 전력거래소는 전력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된 것은 올 여름 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현재 국내 원전 23기 중 10기가 가동 중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위기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광주·전남지역 일부 상가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비웃듯 전력 낭비를 하고 있다. 본보 취재팀이 4일 오후 2시 광주시내 일원을 살펴본 결과, 동구 충장로 메가박스 앞 의료 매장 대부분은 냉방기를 틀어놓은 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실내에 켜놓은 에어컨 바람 탓에 매장 앞에선 서늘한 기운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시민들의 절전 의식 결여와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전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광주시가 지난해 여름 에너지 과소비 사업장 181곳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개문 냉방 영업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전남도 역시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최악의 전력대란은 피하기 어렵다. 물론 전력비상사태는 원전에서의 위조 부품 사용을 방치한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언제까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원전 사고의 재발 방지와 전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를 모두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무소불위, 유소불위

최근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준 사건에 이어 고급 장교를 육성하는 군 최고 교육기관인 육군사관학교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선배 남자 생도가 술에 취한 후배 여자 생도를 대낮에 교내에서 성폭행한 것이다.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는다'는 호국간성의 요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은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교내에서 폭탄주를 마실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사건은 '생도의 날' 축제기간 중 지도교수 주관으로 영내 교정에서 점심식사 중 폭탄주가 돌았고, 만취한 여생도를 남자 선배 생도가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문을 잠그고 성폭행 했다. 67년 육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셈이다.

고대 로마에선 개선장군의 시가행진 마차에 노예를 태운 다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했다고 한다. "모든 영광은 지나간다. 당신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하라." 승리와 힘에 도취되지 말라고 경계한 말이다. 권력의 마성(魔性)은 그러나 늘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

맹자는 일찍이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다(人有不爲也而後 可以有爲)고 했다. 조선시대 정조 역시 관리의 첫째 덕목으로 유소불위(有所不爲)를 강조했다.

정치인과 관리의 권한은 아무 일에나 마구 휘둘러도 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이 아닌, 참고 절제해야 한다는 유소불위의 덕(德)을 이야기한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알량한 권력이 무한하다고 믿는 것인지, 유한한 줄 알기 때문에 있을 때 스스로 절제하는 것인지…. 달도 차면 기울고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다.

크게는 국가권력, 작게는 갑과 을의 권력구도의 상위에 있는 이들은 무소불위가 아닌 유소불위를 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